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0호 [루계 제2760호]

주제 112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음력 6월 5일

철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인민이 드리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철세위인들께 송고한 경의



영원한 태양이신 철세의 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반제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성  
전으로 불리일으키시고 독창적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평균술로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압도하시어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인류전쟁사에 길이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청소환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공화국인민이  
영웅적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군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수습성상 주제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리시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 치렬한 반제반미대결  
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  
시였으며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강대하고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전  
변시키시었다.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  
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시어  
공화국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  
갈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

과 재부를 마련하시고 반제반  
미투쟁의 새로운 장을 펼쳐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반세  
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주제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어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  
내여주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  
시며 전설적위인이시다.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대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 군사사상과 전범을 체득하  
시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  
국이라는 철리를 밝혀주시어  
공화국인민의 심장마다에 필  
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  
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  
화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인  
민 앞에 전대미문의 시련이 닥  
쳐왔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  
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  
히 지켜주시고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들을 안아오시었다.

공화국인민이 년대와 세기  
를 이어오는 치렬한 반제대결  
전에서 련련승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올수 있  
은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  
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  
해안의 예지로 공화국을 일  
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  
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  
키시고 전승의 력사와 전통  
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  
는 역년기들을 마련해주시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  
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만고불후  
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세대와 세기  
를 이어오는 반미대결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신념을 안고  
전승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장형범

##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령장

주제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백  
유같은 충정의 분출이며 공  
화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기약  
해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이날을 맞이한 이 땅의  
인민들은 공화국을 그 누구  
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  
과 탁월한 령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 그 어떤 대적도 덤벼들지 못하게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  
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힘찬 발걸음  
을 내짚는 열병대오를 바라보  
며 온 나라 인민은 인민군대  
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  
워주시는 철세위인에 대한 한  
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  
의 안위를 굳건히 지키고 후  
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는  
강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어야  
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지난 10여년간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  
이시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신 선군  
건설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나갈때 대한 사상, 군력강화  
의 4대전략적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리론  
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  
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들  
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  
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  
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



들을 돌아보시며 5대교양을  
원리적으로 심도있게 하도록  
하시였고 전군에 혁명전통교  
양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당과 수령에  
게 무한히 충실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으로 든든히 무장한 혁명가  
들로 키워주시었다.

동서고금의 모든 병법들과  
그 활용방식까지 환히 꿰뚫  
어보시며 어떤 형태의 전쟁  
과 작전, 전투에서도 다 승  
리할수 있는 령할무쌍한 주  
체의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군사적예지는 인민군대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게 한 백승의 보검이었다.

전군을 강철의 전투대로  
꾸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비범한 령군술은 조선인  
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비  
롯한 전국적인 대회들과 오  
중훈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군  
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  
운동에도 어려웠으며 끊임  
없이 찾고찾으신 포연서린 전  
투훈련장들에도 새겨져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에  
까지 서슴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  
과 헌신은 전군을 령도자와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동  
지부대, 전우부대로 굳건히  
다져놓았다.

지난 2월의 열병식장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  
의 함성을 터치는 열병식참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  
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  
뢰하고 따르는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엿볼수 있다.

진정 천출명장의 탁월한  
군건설령도가 있어 공화국군  
대는 사상의지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최강의 군대  
로 자라날수 있었다.

### 무진막강한 공화국의 국력

지난 2월 8일 김일성광  
장을 누비며 도도히 나아간 주  
체병기들을 보며 세계는 공  
화국국방공업의 발전상에 경  
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시위한 이 철의 대오는 나  
라의 국방공업발전에서 바  
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  
없는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  
할수 없다.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번영  
과 행복을 수호할 절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  
으랴.

국방과학자들에게 국방과  
학의 길은 자주적 길, 혁명  
의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도  
안겨주시고 초강력주체무기  
들의 완성을 위해 힘로역경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건국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게 되었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  
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  
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  
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  
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지론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  
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  
깊은 연설에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스스로  
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  
가는데서 민족과 그 끝이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  
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  
다 확실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지난 10여년을 되새겨보  
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령도 따라 당겨올 위대한 미  
래를 내다보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결출한 사상과 령도, 열화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반  
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만고절세의 영웅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11돐을 맞으며 이  
나라 인민은 그에게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김명일





시류음

# 전승의 위훈 영원히 빛나라

## 영생의 삶은 어디서 빛나는가

강은별

퍼지는 해살같은 이 통선은  
그대들을 품어안은 사랑의 넓은 품  
석박산, 영생의 이 언덕에서  
가슴껏어 불러보는 려사들이여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웅들이여

전쟁도 많은 이 행성  
차디찬 흠에 쓸쓸히 묻혀버린  
그런 명훈들 수없이 많다 하라  
하지만 이 땅의 려사들은  
조국, 어머니조국이 품에 안았구나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결은  
려사들의 묘비를 쓰다듬는 손길  
인듯  
비둘에 비쳐드는 따스한 해살은  
진함없는 사랑이런듯  
구진한 그 정은 세월마저 멈춰세워  
려사들의 청춘을 고이 빛내주고  
있나니

불라는 땅, 포연서린 하늘과 바다에  
피를 뿌리고 간 병사를 잊지를 못해  
그 하늘과 땅, 바다를 다 더듬어

한사람한사람 모두 찾아  
뜨겁게 품어준 은혜로운 품!

아, 떠나간 자식은  
남아준 어머니의 가슴에 묻힌다  
지만  
조국의 아들딸로 그 품에 안겨  
후손들앞에 긍지로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여

수령님과 장군님 다 아시는 려사들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이름을  
심중에 깊이 새겨안으신 우리 원수님  
세월과 더불어 영원한 조건의 영웅  
들로  
값 높이 내세워준 고결한 의리의  
세계여

사람은 죽어 땅에 묻힌다 하라  
하지만 전화의 려사들은  
조국의 품에 어버이품에 안기었으니  
이보다 행복한 삶 어디 또 있으랴  
아, 원수님품에서 빛나는 영생의 삶  
이여!



영웅메달을 쓰고 또 쓸어본다  
려사가 목숨으로 지켜낸 강토  
소녀는 이 땅을 정히 끌어보는것이다

불멸할 전승세대 그 정신을 이어  
가는  
후손들 손길에 금별은 영원히 빛난다

## 로병은 임무수행중에 있다

리철준

오늘도 여기 석박산기슭  
잊지 못할 전우들 찾아 나는 왔다  
소리쳐 부르며 금시라도  
부분대장이 왔다고 반겨 일어날듯  
싶은  
분대장동지여, 분대의 꼬마전사여

마치 결전의 전초에 서있는듯하구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있으니  
고지를 사수하던 7일날 7일밤  
그 치열한 싸움의 나날들이  
어제런듯 이 눈가에 비껴드누나

파편에 한발울 잃은 분대장  
나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보지 않았다  
수류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 때  
불기둥이 터쳐올린 그 폭음은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라!》  
부분대장 나에게 남긴 명령 아니었던가

분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꼬마전사  
아직은 인생에 끝이 있다는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나 어린 그  
원수의 동가슴을 찌르고 쓰러지면서  
남긴 말도 그 한마디였거니

아, 조국위해 생을 아끼지 않은 전우들  
죽음보다 두려운것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것  
지켜야 할 고지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조국이였다

전화의 분대장과 꼬마전사  
돌아오지 못한 고지의 전우들  
그들이 나에게 피라게 남겼던  
《원수들을 끝까지 소멸하라!》  
준절한 그 웨침 이 가슴을 치거니

그렇다, 로병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70년세월이 흘러 산천은 변했어도  
이 땅에 침략자 미제가 있는한  
전화의 정신 승리의 전통 물려주  
어야 할  
성스런 임무가 나에게 있다

백발을 얻었어도 나는 로병  
그 끝나지 않은 임무앞에  
나는 마음의 군복 벗을수 없거니  
전우들이여, 조국이여  
믿어달라 생이 다하는 마지막날까지  
이 로병은 임무수행중에 있음울!

## 영웅의 모습

김영일

피를 마쳐 생명을 바쳐  
불멸할 군공 이 땅에 남겼건만  
한장의 사진조차 남기지 못했구나  
오, 영웅의 비둘  
사진없는 빈자리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사진이  
어찌 그에게라고 없었으랴  
그러나 사진마저 깡그리 불태운  
전쟁  
영웅의 가정도 그의 전우들도  
전쟁의 불속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늘

영웅의 사진은 없어도 보여온다  
한치의 땅도 원수에 바쳐내주지  
말라!  
피의 철구 터치던 려사의 모습이  
홍탄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  
적진으로 육박하던 피것은 그 얼굴이

포연에 그슬리고 파편에 찢기여  
남아준 부모도 알아보기 힘들었을  
모습  
하지만 비발치는 총탄을 뚫고  
육탄이 되어 부대의 들격로를 연 영웅

불사신 그대를 조국은 기억하거니  
가슴에 혼장 가득히 석박산을  
찾는  
로병들의 모습에서 그려보는 그대  
얼굴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든  
승리상의 그 병사의 모습에서  
영웅이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본다

비록 비둘엔 사진없는 빈자리여도  
가슴에 새겨지는 강의한 려사의  
모습  
사진은 남기지 못했어도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물려준  
영웅의 모습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  
리니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충충도 생명을 바친 전화의 영웅들  
그들의 모습은 한모습  
가슴에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오, 전화의 려사 영웅의 모습이여!

## 소녀와 영웅 메달

김태룡

이슬먹은 잎이 햇빛에 고운  
꽃 한송이 들고 소녀는 서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한 비둘앞에  
안간적 없고 응석 한마디 받아준적 없는  
할아버진 사진속에 말이 없다

멀리 간돌 알았던 1950년대  
이렇게 할아버지곁에 가까이 있었어  
어린 가슴에도 깊은 생각 불러내어  
소녀 또한 말없는 침묵의 이 상봉  
아, 꽃도 말이 없구나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근위중사  
피를 뿜은 그 가슴을 대신해  
비둘이 달고있는 영웅의 금별  
굳고굳은 들척터 그리도 역세였을  
려사의 가슴 소녀는 마음에 더듬어  
보는가

어린 손으로 정히 쓸어본다  
영웅이 달아 못본 금별을  
뉘달리 웃음 짓고 똑한 섬미었다지만

최후에는 그 엄한 눈가에  
미소를 띤 구리빛 얼굴 어루손다

마지막탄환마저 원수에게 날리고  
육박전에 비껴든 총창을 쓸어본다  
양지바른 고지의 그 어디엔가  
할아버진 심었다는 분비나무 바늘잎  
들격전에 추켜들었다는 공화국기발  
자락도

전쟁 3년 려사가 멀친 위훈의 나날은  
금별을 정히 쓰는 후손의 손길에  
이렇듯 생생히 오늘에로 이끌려오고  
심장에 뚫어번지던 려사의 붉은 피는  
메달에 대인 저 해맑은 손을 따라  
소녀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거니

영웅의 넋을 고이 간직하려는듯  
금별을 쓸고쓰는 나 어린 손녀  
메지 않구나 그 작은 손을  
그렇게 안아보는 금별의 무게  
어이 잇으랴 전승세대의 그 위훈을

## 여기서 총을 틀어잡으라

김태룡

수많은 려사들 이들중에  
어느 영웅의 총이 에 놓이었는데  
석박산렬사묘의 한자루 따발총  
목숨과도 같았던 려사들의 총  
놓여있다 공화국기발 기폭우에

가중스런 원수를 조문에 잡고  
퍼붓던 그 맹판 탄발사격의 총성  
홀린간 세월을 흔드는 메아리더나  
쿵쿵 가슴치는 심장의 박동소리로  
들려오는 멸적의 총소리 총소리...

아직도 달아오른듯한 총신에선  
단내가 물씬 가슴에 흘러들듯싶은데  
총가목이며 부력을 쓸어보면  
손에 흥건히 젖어들듯싶은  
아, 려사들의 진한 피와 땀

삼가 이 총을 두손에 받들어  
어느 용사의 비둘앞엔 놓는다면  
금시 땅을 박차고 일어날것만 같아라  
적진으로 육탄되어 뛰어들던 그때처럼  
들격전에 내달리던 그 나날처럼

살아돌아오지 못한 용사들  
승리와 함께 넘겨준 전장의 총대

이 총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고향집, 소중한 조국이  
있고  
놓으면 끄기는 운명의 숨줄이기도  
했으니

이 첩리가 만장단된 총대  
려사들이 물려주는 조국수호의 총대  
다 쓰지 못한 총탄 분노의 불로 뿜  
으랴  
려사들이 넘겨주고 후세들이 넘겨  
받는  
오, 숭엄한 총대의 계승이여!

사랑으로 버려안은 총오가 있고  
중요를 터쳐 지켜낸 사랑이 있는 곳  
피를 물고 날뛰는 원수들  
깡그리 남김없이 쳐갈길 때까지  
영웅들의 령전에 놓아놓수만 없는 총

려사묘를 찾는 사람들 모두가  
가슴에 힘껏 그러안은 전화의 총대  
비록 총은 한자루여도  
천만이 잡고도 남을 중오의 무기는  
여기 석박산에  
천자루 만자루 쉼수 없어라

주제110(2021)년 7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로병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평양체육관에 나오  
시였다.

주름진 두볼에 흐르는 눈물을 연  
방 닦으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로병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촬영대까지로 다가오시자 추우쳐오  
르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이께  
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저마끔 대  
회과정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  
기도 하시고 한 전쟁로병이 허물없이 드  
리는 소청도 기꺼이 받아주기도 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을 우리처럼 가슴설레이는 로병들속  
에는 아흔살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 교  
단에서 예술인재후비육성사업에 지혜  
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녀성전쟁로병  
교육자도 있었다.

사실 그는 방금전까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릅없이 안겨드는 로병  
들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나무람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앞  
에 이르시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그이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뵈고싶었  
습니다!》  
그가 목메인 소리로 아뢰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  
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너무도 짧지만 같은 영광을 받아안은

얼마전 나는 TV에서 한 로  
병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보  
게 되었다.

편집물의 내용은 한 전쟁로  
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에 있는 사랑하는 처녀  
와 주고받은 편지에 대한 이  
야기였다.

병사는 싸움속에  
서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고향과  
처녀에 대한 사랑  
의 진정을 담은 편지를 후방  
에 있는 애인에게 보냈었다.  
자기의 불같은 마음이 비껴  
있는 전초가의 들꽃도 함께,  
총각의 편지를 받은 처녀  
는 후방의 소식과 함께 자기  
의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회  
답편지를 전선의 병사에게 보  
내었다.

병이 바래고 보물이 일어  
여리군데 찢어진 그 편지를  
전쟁로병은 바로 70년세월이  
흐르도록 고이 간수하고있  
던것이다.

편지는 후방에 있는 애인에게 보냈었다.  
자기의 불같은 마음이 비껴  
있는 전초가의 들꽃도 함께,  
총각의 편지를 받은 처녀  
는 후방의 소식과 함께 자기  
의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회  
답편지를 전선의 병사에게 보  
내었다.

병이 바래고 보물이 일어  
여리군데 찢어진 그 편지를  
전쟁로병은 바로 70년세월이  
흐르도록 고이 간수하고있  
던것이다.

병사에게는 원수에 대한 열  
정의 의지와 용맹을 날게 하  
고 위훈의 자양분이었을 그  
리고 처녀에게는 뼈를 지미는  
슬픔을 이기게 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원호사업  
에 앞장서도록 힘껏 떠밀어주  
었을 그 편지.  
나는 그려보았다.

포연이 흐르는 전화의 나날  
전초가의 병사와 후방의 처녀  
가 주고받은 편지!

바로 거기에는 사랑과 행  
복,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  
을 짓밟고 빼앗으려는 원수들  
을 기어이 복수하고 정든 고향  
향산천과 조국을 지켜 빛나

그 사랑으로 죽음도 이겨냈으  
며 원수들을 쳐물리쳤다.

정든 고향의 부모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사랑을 담았  
고 승리하고 돌아올 님을 기  
다리는 처녀와도 사랑을 나  
누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전선의 병사들과 후방의 인

전쟁로병이 70년세월 간직  
한 한장의 편지.  
이 편지를 보며 나는 전화  
의 나날 사랑하는 고향과 정  
든 산천, 출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아낌없  
이 불태운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소중히 받  
아안게 되었다.

그 어떤 원수  
도 이런 불같은  
사랑을 지닌 심  
장만은 빼앗을수 없으며 이  
런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그  
것을 지켜 싸우는 영웅이 될  
수 있고 투사가 될수 있다.  
그렇다.  
로병은 단순히 처녀에게서  
받은 편지를 펴고 산것이 아  
니라 청춘을 바쳐 지킨 조국,  
이 땅에 대한 사랑을 펴고  
산것이다.

오늘 수도의 새 거리건  
설장을 비롯하여 창조와 혁  
신으로 들끓는 조국땅 그 어  
디에서나 청춘의 열정과 지  
해를 남김없이 바쳐가는 이  
나라 청년들의 가슴속에 로  
병의 목소리는 이렇게 울리  
고있다.

부모처자에 대한 뜨거운 사  
랑은 불타는 조국에의 시작  
이고 원동력이라고.  
우리모두의 삶과 운명의 전  
부인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한없이 소중한 이 땅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려고  
김혜정

### 로병들에게 하신 정깊은 당부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3)



석윤기 선생

나 단편소설 같은 것을 몇편 쓰는 식으로 창작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도를 붙여 놓을 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령의 령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성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문학작품에 담는 것은 현시대의 성숙된 요구이고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혁명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담받은 석윤기선생은 작가로서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떼게 된다는 환희로 하여 북받치는 흥분을 어쩔 수 없었고 그처럼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창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하기에 그는 창작실로 돌아오는 즉시 어머니수령님의 고매한 품도를 형성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작가동맹에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 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집단(오늘날의 4.15문학창작단의 전신)이 무어졌다.

이때 석윤기선생은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았던 창작집단에 망라되어 창작활동을 벌리게 되었는데 참으로 이것은 작가인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이었다.

그는 밤잠을 안고 펜을 달려 짧은 기간내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탈고하여 심의에 제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소설의 사상적내용과 이야기줄거리, 기본인간관계와 성격, 역사적사실 등 소설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석윤기선생은 가장 위대한분의 보살피심속에 자기가 창작생활을 하고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밤에 낮을 이어 완성작업을 다그쳤었다.

그리하여 1970년 여름 이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197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작가 석윤기선생을 곁으로 불러주시었다. 그것은 작가에 대한 그의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밤이 깊도록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문제, 혁명발전의 진법문제 등 참으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석윤기선생의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물을 알아보고 손수 구하여 보내시면서 든든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애로되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하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었다.

작가의 가슴속에서는 그의 이 대한 흥분의 정이 대처럼 끓어올랐고 격격과 격정이 쇠물처럼 끓어넘쳤다.

그리하여 그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기는데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1976년), 《대지는 푸르다》(1981년), 《봄우

피》(1985년) 등을 련속 명작으로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온몸과 넋을 다 태웠다.

석윤기선생은 김일성총장을 수여받았고 김일성상장관인 회, 로력영웅으로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어린시절에 품었던 소박한 그 모든 소원은 남조선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 비로소 인생의 참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창작적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값진 영광에 찬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본사기자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주제40(1951)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인민군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지휘관들속에서 나타난 사대주의, 교조주의적경향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군사지휘관들은 우리의 군사전법과 선진군사과학에 정통하여 그것을 작전전투조직과 지휘에 능숙히 활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동한 실례를 들어 주제를 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었다.

서양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는다고 하여 우리도 음식을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을 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밥과 국을 먹기때문에 나이프와 포크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조상대로 내려오는 생활습관대로 음식을 숟가락과 저가락으로 먹는것이 제일 좋다. 다른 나라의 전법도 이와 같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사전법은 군대의 무장장비수준과 전투행동지대의 특성에 많이 의존된다고, 우리는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다른 나라의 전법이 아니라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포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평사보다 박격포와 곡사포를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고, 기복이 심하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는 박격포와 같이 가볍고 기동이 편리하며 위력이 있는 포들을 잘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지휘관들을 믿어주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군사지휘관들은 작전과 전투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함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전쟁승리를 앞당겨야 하겠습니까.》

이날에 진행된 작전회의와 지휘관, 정치일군회의는 사대와 교조를 불사하고 우리 식의 싸움방법으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지배와 굴종, 범죄의 역사는 감출수 없다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야수들의 치떨리는 만행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미국은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리승만역대당과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대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어 리승만역대에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이양할것을 강요하였다.

미국에 추종하여 리승만역대는 맥아더에게 남조선군의 작전권을 넘기는 편지를 보내었으며 이 편지를 받은 맥아더는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이양받았다.》는 회답편지를 주구에게 보냈다.

상전과 주구사이의 서한교환형식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남조선군은 이른바 《국군》이란 명색밑에 가지고있었던 형식상의 《독자성》마저도 잃고 미국의 지휘와 명령없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철저한 피뢰군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대전협정》으로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거머쥔 미국은 1954년 11월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군을 계속 통수권을 계속 행사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느한 남조선언론은 《미국은 1994년 12월 당시 (정부)에 명시적통수권을 이양하였지만

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환요구가 더욱더 거세어지자 2007년 2월 형식상로나마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극악한 친미주구리명박역대는 《시기상조》니, 《갈뭇된 선택》이니 하면서 미국상전에 예결하여 전시작전통제권환요구를 2015년까지 연기시키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이후 박근혜역대는 전시작전통제권환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는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전조선에 침략하고 세계계매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행동이 일층 강화되게 되었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데는 시기상조라고 떠들고있다.

친미사대패국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친화적무리들이 그대로 있는한 남조선은 언제 가도 미국의 식민지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을 가하여 공화국을 재머미남은 폐허지대로 만들었다.

평양시를 비롯한 평화적도시들과 농촌들에 대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만행은 실로 전대미문의악행이었다.

미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은 전쟁을 도발한 이후 330여일동안에만 하여도 연 20만 180대의 비행기를 출격시켜 8만 9 400t의 폭탄과 9 052만 5 000t의 기름탄, 700tgal의 나뭇탄 등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퍼부었으며 전쟁 전 기간 평양시에만도 1 400회에 걸쳐 시민 한사람당 1개가 넘는 42만 8 700여개의 폭탄을 떨어 주었다.

지어 미제공중비적들은 적십자표식이 있는 건물들과 병원은 공격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국제협약마저 짓밟고 보건기관들에 대한 파괴만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군사적목표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옛 사찰, 고분, 루각, 성문들도 가차없이 폭격 파괴하였다.

이렇듯 미국은 전쟁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온갖 야수적방법과 범죄적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하였다.

본사기자 김광혁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반공격으로 참패를 거듭한 미군이 남으로 쫓겨가면서 감행한 대대적인 살륙만행들 가운데는 로근리학살만행도 있다.

당시 미제침략군은 인민군대의 반격을 물리쳐 전선에서 퇴각을 하고있었다.

미제침략군의 한 부대가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주곡리(당시)일대에 이르렀을 때였다.

미제침략군은 이곳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줄테니 모두 모이라.》고 하고는 철길을 따라 로근리로 끌고가 7월 26일 정오 무렵 그들을 모두 철길위에 집결시켰다.

그때 미군통신병이 어디론가 무전련락을 하자 얼마후 정찰기 한대가 나타나 인민들의 머리우를 몇바퀴 돌고가더니 이어 미군전투기 2대가 날아와 무작정

이 끔찍한 살륙만행은 7월 29일 오전까지 며칠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를 두고 남조선출판물은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참극》이라고 하면서 미군의 로근리학살만행을 단죄하였다.

그때 그 학살만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미제침략군의 한 사병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련락병이 달려와 《몸땅 싸죽이라. 한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소총수였던 페르슨은 《이것은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시인하였다.

모든 사실은 로근리에서 저지른 미제침략군의 대량살륙행위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되어 감행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범죄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의 학살만행은 단지 로근리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다.

미군의 군화발이 닿은 남조선의 곳곳마다에서 야수적으로 감행되었다.

미제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중무장한 남조선군경들을 동원하여 대전현무소에서 1 800여명, 부산현무소에서 4 800여명을 총살하였으며 대구현무소에서 1 400여명을 집단학살하고 시체들을 수직갱에 처넣거나 매장해버리었다.

조선전쟁시기 감행된 치떨리는 민간인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야만의 무리이며 범죄의 집단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로근리는 고발한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미제가 서한지에서 1000여명 폭살

외세에게 군사주권을 통채로 내맡긴 매국역적

# 누가 진짜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가

최근 미국과 윤석열역적페당이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지난 6월중순 미7합대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기여든지 두주 일만에 또다시 미전략폭격기 《B-52H》 2대가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들어 남조선공군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련이어 벌어지는 미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와 불장난소동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북침전쟁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공화국의 모든 행동들을 《도발》, 《위협》으로 오도

하고있는 미국의 이중적행태야말로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역적페당도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을 거리낌없이 제창하면서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페당이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공화국을 《악마화》해보려 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침략적,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위협천만한 반



공화국전쟁대결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페당이 《워싱턴선언》을 통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모의하고 그것을 계기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정경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현실은 미국과 윤석열역적페당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전쟁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핵전쟁미치광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불을 줄기는 자는 제가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 단평 눈감고 아물한다

요즘 윤석열역적페의 하수인들인 《국민의 힘》 깃들이 노는 꼴이 참으로 불쌍사나이다. 식당에 우르르 몰려가 물고기회를 먹는가 하면 수산물시장을 찾아가서는 수조속의 바다물까지 퍼마신다고 한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동조하는 윤석열역적페의 친일말동을 합리화하고 섬나라 깃들이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핵오염수가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자고 벌리는 짓거리인데 친일사대매국에 미쳐도 참더럽게 미쳤다. 지금 남조선에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면서 일본평사판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시위투쟁을 벌리고 청소년들까지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 지어 일본내에서도 《깨끗한 바다를 남기

는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페와 그 하수인인 《국민의 힘》 깃들은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섬나라깃들을 비호두둔하느라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있는것이다.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파괴하려는 섬나라깃들을 그렇게도 두둔하고싶으면 차라리 바다를 건너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물과 그 수역의 고기를 먹어보는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남조선 각계층이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핵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윤석열퇴진》, 《〈국민의 힘〉 심판》을 웨치며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웅담하다. 한 일 력

《윤석열(정권)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살인(정권)》이라고 단죄규탄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살인, 아동로동력착취 등 범죄행위들도 급증하고있다. 세인이 남조선을 가리켜 인권의 무덤, 범죄

《윤석열(정권)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살인(정권)》이라고 단죄규탄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살인, 아동로동력착취 등 범죄행위들도 급증하고있다. 세인이 남조선을 가리켜 인권의 무덤, 범죄

## 인권유린왕초들의 범죄적인 대결문서

그뿐이 아니다. 역적페당의 특권독재주의의 정치, 친제법정주의에 의해 경제는 파국의 진멸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사회의 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실업과 빈궁에 허덕이고있다. 오죽하면 《민주로총》 소속의 한 건설로조원인 윤석열역적페당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옥역속에서도

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역적페당의 특권독재주의의 정치, 친제법정주의에 의해 경제는 파국의 진멸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사회의 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실업과 빈궁에 허덕이고있다. 오죽하면 《민주로총》 소속의 한 건설로조원인 윤석열역적페당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옥역속에서도

## 섬나라의 거수기가 된 국제기구, 비호하는 친일역적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각계층으로부터 강한 항의와 항의에 시달리다가 뺑소니쳤다고 한다. 야당들과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은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일행이 도착하기 1시간전부터 비행장에 모여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만든 보고서를 폐기하라》, 《해양투기 반대》 등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항의투쟁을 벌리었다. 할수없이 총국장일행은 비행장안에 2시간이나 갇혀있다가 시위대와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뒤문통로로 도주속도로 정한 호텔과 《정부》 청사앞에서 벌어진 규탄집회로 하여 기자회견, 면담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달아나듯 가버렸다고 한다. 자기 본연의 사명과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의성을 저버리고 일본의 반인륜적행위를 비호두둔하는 한갓 거수기로 전락한 국제원자력기구가 당한 웅담한 분병이라 하겠다. 원래 국제원자력기구가 제대로 된 기구라면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

서 각계층 인민들이 《전 인류에 대한 방사능테러》, 《미래를 파괴하는 반인륜적망동》으로 략언하며 강력히 반대하고있는 범죄적인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 기구는 그 반대로 행동하여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지난 4일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가 안전기준을 부합된다는 내용의 영리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갖출 발표했것을 남조선의 야당들이 이 보고서를 《강동보고서》로 략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을 위한 안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오염수에 방사성핵종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 이런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것이 비과학적인 사고이다. 철저한 재조사로 강력히 대응했것다고 하면서 규탄해나서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지 아니다. 남조선 각계층도 국제원자

력기구의 조사결과로는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수도, 도덕적책임과 국제법적무를 면제할수도 없다고 비난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으로부터 100만t이상의 폐물을 받아먹고 일본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인다고 규탄해나서고있다. 사실들은 국제원자력기구 것들의 첩첩피성과 도덕적저렴성을 잘 드러내보여주고있다. 핵오염수방류로 세계의 대양을 죽음의 대양으로 만드려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생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야말로 인류의 안전을 엄중히 해치는 공범자이고 정신이 속 나간 집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일상정의 비위를 맞추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덮어놓고 비호두둔해나선 윤석열역적페당도 쓸개빠진 매국노질이다. 일본이 위협천만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것이 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남조선이고 남조선의 어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이라는것은 누

윤석열역적페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대내통치위기와 서도 《윤석열때문에 과멸》고있다. 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수 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민심의 이러한 거세찬 항거로 검찰과소통체제는 밀부러져 뒤흔들리고 역적페당의 파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력사를 보면 최악의 위기에 빠진 파쇼독재자들은 레외없이 누구나 욕망의 칼을 빼들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윤석열역적페당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역적페와 그 페당이 사대매국과 검찰파쇼정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각계층은 물론 저들에게 의서는 정치적대과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대며 탄압하고있는것은 막다른 통치위기를 어떻게 하나 수습하고 비참한 과멸을 면해보려는 필사의 발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 써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 파쇼독압으로 얻을것이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종말을 더욱 앞당기는것뿐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페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총파업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 연 35만 명이 떨쳐나 결의대회, 거리행진, 초콜분화제, 서명운동 등 150여차례의 각종 투쟁을 벌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농민회총연맹》, 《민중행동》을 비롯한 1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에 합세하였다. 총파업의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망라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정권) 퇴진 7.15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천재법

과 야당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저지투쟁도 함께 벌렸다. 투쟁참가자들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허용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섬나라깃들과 일본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친일역적 윤석열역적페당을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투쟁은 사대매국과 파쇼, 반공화국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만고역적 윤석열역적페당에 대한 웅담한 항거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역적페당은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정치거부》, 《과다확산행위》로 매도하며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민심을 동진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하지만 역적페당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력

## 통치위기에 직면한자들의 파쇼적란동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조선화작품들

전후 공화국의 화가들은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주제미술의 확대원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고 국보적 가치가 큰 조선화작품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조선화 《5월의 농촌》이 시야에 비껴왔다. 정중여는 조선화의 전통적 기법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밝고 선명하며 섬세한 형상을 창조한 화가라고 한다.

《이 그림은 화가 리석호선생이 그린 조선화 《소나무》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조선화의 물결기법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현대조선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금희강사는 조선화 《소나무》는 리석호화가의 필치가 가장 원숙하였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소나무의 역센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의 어느 나라 전람관에 김용준화가가 그린 이 《춤》이 전시되었을 때 그 나라의 관록있는 미술가는 작품의 신비한 예술적경상에 감탄한 나머지 모자를 벗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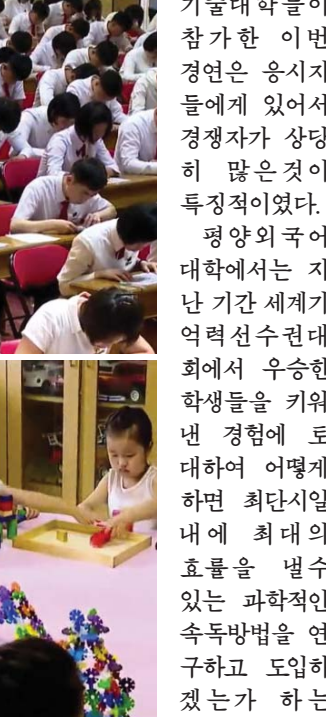


교육발전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 간다

공화국의 교육부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런 경연은 높은 속독술을 소유한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학생들속에서 속독력의 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었다.

한편 평양시안의 유치원들에서 교육교양의 첫 공경인 유익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수방법들과 수단들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창광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내용과 방법, 수단들이 보다 현대화되는데 맞게 교보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교수에 적극 구원하였다.

천연기념물들이 새로 등록되었다

얼마전 함경북도 명천군 거문리(당시 양령리)에서 발굴된 폭지이발코끼리화석과 양덕샘물 등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었다.

또한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열대, 아열대에서 살던 동물들이 조선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폭지이발코끼리(Go-photherium)화석은 신생대 제3기 중신세층에서 발견되었다. 주체65(1976)년 11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화석을 보아주시고 인류진화발전사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열대, 아열대에서 살던 동물들이 조선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기와 굽기 풍습 (1)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조선봉건왕조중엽 함경도 함흥부의 향교마을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고을의 향교가 자리를 잡았서 향교마을이라 불리우는 동흥산기슭의 이 동네에 갈자리를 엮어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동동》을 거둥거둥 부르며 갈자리를 하나 엮어 팔아놓고 또 하나를 엮어나가려는 데 갑자기 우지끈 딱- 하는 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왔다.

선 홍달은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안해가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왔다.

《이보라구, 마누라. 마른 하늘에서 벼락치기 아니요?》 겨우 정신이 들었는지 안해는 몸을 떨며 겁먹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만급 집을 다시 짓자 하였는데 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런 벌을 당했구려.》 홍달은 안해의 푸념소리에 할 말이 없었다.

《아이구, 이제 무슨 날벼락이람. 예고,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안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쳤다.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아범님!...》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아범님!...》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우리 민족의 고상한 색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사랑하고 면면히 이어온 민족의 색깔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강의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용감하고 절제바른 우리 민족의 성격과 품성, 정서와 기호가 반영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연하고 밝은색을 좋아하였다.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은 민족우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2022년 최우수발명가상수상자들 (2)

평양건축대학 공과대학원무원 부원장 송영일은 건축공학부문의 권위있는 공과대학자이며 교수, 박사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여러건의 발명을 하였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보이라후부연도도판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개조하여 수십년이상 리용할수 있게 한 발명이다. 이 발명들의 도입으로 여러 화력발전소 등에서는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상건설에서 공사기일을 단축하고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황해남도정보통신국 실장 리성남은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많은 농장들에 도입하였으며 각종 통신설비와 장치들을 제작하여 정보통신사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0일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백화점에서 평양시민들에게 양덕샘물(당시 동양샘물)도 많이 가져다 봉사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단하는 프로그램과 태양빛전지를 리용한 충전장치 등은 그의 재능과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지적제품들이다. 그는 말단양대기농수자식들 침기와 포전종합축적장치를 제작하여 농장들에 실리있는 통합경영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열대, 아열대에서 살던 동물들이 조선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그는 말단양대기농수자식들 침기와 포전종합축적장치를 제작하여 농장들에 실리있는 통합경영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학명을 새로 고쳐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폭지이발코끼리화석은 현재 대학의 자연박물관에 보존되어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